

추석 명절 가정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 예배의부름 인도자

추석을 맞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신 앙 고 백 (새번역)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통 307장) /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 대 표 기 도 가족 중에서

▶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인도자

¹⁶항상 기뻐하라 ¹⁷쉬지 말고 기도하라 ¹⁸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말 씀 선 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래 내용을 인도자가 낭독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항상 기뻐하라. (16절)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
워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배고픔,
추위와 더위, 풍토병, 배척과 핍박, 강도의 위험, 억울한 누명, 옥살이 등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
켜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쉴 때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삼상 12:23).

건전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됩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나를 짓누르고, 염려와 고민으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기도할 때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땀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3.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4)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εὐχαριστία)입니다. 이 단어에 은혜, 카리스(χάρις)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감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사의 어원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깊은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 찬 송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통 478장) / 다같이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꿈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 주 기도 문 (새번역)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